

지상중계-제2회 불교유아교육 워크숍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아이 키우자”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 교육을 모색해보는 '제2회 불교유아교육 워크숍'이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속유치원에서 열렸다.

정신·신체 조화로운 발달, 불교미술 이해 돕기등 모색

조기 영아교육을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검증받지 못한 사교육이 동심을 멎게 하는 요즘, 불교적 가치관을 접목한 바람직한 유아교육법을 모색해보는 워크숍이 열렸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이수경, 동국대 불교이동학과 교수)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제2회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불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불교·어린이·문화'를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생태유아교육, 유아의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워크숍을 통해 발표된 논문 중 이수경 원장과 이주연 교수(경인대)의 '유아를 위한 창의적 전통불교미술 문화감상 및 창작 워크숍', 이부미(중앙대 강사) 씨의 '불교생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소개한다.

크습은 '불교·어린이·문화'를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생태유아교육, 유아의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워크숍을 통해 발표된 논문 중 이수경 원장과 이주연 교수(경인대)의 '유아를 위한 창의적 전통불교미술 문화감상 및 창작 워크숍', 이부미(중앙대 강사) 씨의 '불교생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소개한다.

전통불교미술 교육프로그램에 응용 효과적

이수경 원장과 이주연 교수는 유아들이 전통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의적인 제작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교미술을 회화와 조각, 공예, 디자인, 건축 5개 분야로 구분한 뒤 이를 기초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미술문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례로 '탑 감상 및 창작하기'라는 유치원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탑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덧붙여 탑 이름 지어보기, 탑과 관련한 설화 찾아보기, 탑에 표현된 동물이나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석조건축의 한 부분으로서의 탑이 지닌 의미를 알아보는 학습이 있다. 이 원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미적 체험과 감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전통 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미술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교육은 불교인식의 기본

최근 새만금 사업과 청계천 복원, 북한산 관동도로 논의 등이 연일 신문지

상을 장식하고 있다. 그만큼 생태는 우리 삶에 있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공동육아·공동체교육 현장전문가이기도 한 이부미 씨는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진 생태교육의 경험을 불교의 생태윤리에 연결짓는 시도를 선보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생명존중"이라고 말하는 이 씨는 "자연에 파괴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교생태운동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존재라고 보는 사고방식과 인간중심주의, 연기적인 사고방식의 결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교생태운동의 일상적 실천의 예로 이 씨는 발우공양을 든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이야말로 불교생태운동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생활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씨는 "환경윤리의 실천은 어린이들의 권리이자 중요한 교육적 사안"이라며 "불교의 자연생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태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언어 폭력



처음 보는 순간 '참 미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50대 초반의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체리핑크색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켓은 부인의 하얀 얼굴과 잘 맞아서 무척 화사하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표정 속에 담긴 밝은 미소는 부인의 화사한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교양미를 갖춘 부인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인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화사한 그 모습은 자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행안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상대방을 바르게 직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하에 딸 하나를 둔 부인은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합니다. 자영업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수입은 가정을 꾸려가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 않아서 부인은 온상 속 나무처럼 거센 비바람 한번 맞지 않고 중년의 고개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늘

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도 어느 정도 찾게 되고 자신이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각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 부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밝은 쪽으로 가꾸어 갔다고 합니다. 옷도 밝은 색 옷을 입고, 표정도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말 것 같은 공포감이 느껴져서 부인은 죽음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피 취한 채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나처럼 오장이 마디마디 찢긴 것 같은 고통을 참다못해 저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을 끌고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부인은 늘 밝은 옷을 입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의 영정이 모셔져 있던 집에 갈 때면 더욱 그랬는데 그것은 남편한테 자신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부

무심코 한말, 상대방에 상처 줄 수도...

은화하고 포용력이 있는 남편은 어지간한 일에 화를 내지 않아서 부인은 남편 때문에 긴장해 본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습도와 온도가 잘 맞는 온상 속 같은 평화로운 그녀의 가정에 불운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위안 말기 판정을 받고부터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위안말기 판정은 평화로운 그녀의 가정을 일시에 흑담밭으로 만들고 말았는데, 남편은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하던 일을 차분히 마무리 지어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켜 놓고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자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서 부인은 한동안 자신이 이방인들 속에 끼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깊어지면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 영정이 모셔져 있는 절로 발길을 돌리곤 했는데 그런 덕분에 부인은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부처님에게로 데려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절에 가면 뭔가 남편 가까이 다가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부인은 거의 매일 절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로도 자주 듣게 되었고, 경전을 해설한 책도 자주 보게 되어 불교에 조금씩 심

인 자신을 향해 귀속말을 하고 있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보살들은 저를 힐끗 힐끗 쳐다 보면서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아한 웃음 입고 생활생각 웃고 다니느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침을 맞은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서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회가 끝나고도 한참 후에 법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남편과 제가 누군가로 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말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부인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질문을 받은 순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는 얼마나 여러 번 그런 말로 사람을 죽였을까?"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일까요?

化緣(www.hwaeon.org)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수박껍질 무생채 무침. 수박 속껍질 200g, 무 200g, 비트 50g, 골담초 꽃 30g,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 소금 1/2큰술. 1. 수박의 하얀 속껍질과 무는 곱게 채낸다. 비트는 강판에 갈아 거즈에 내려 채낸 무와 수박에 각각 넣어 물들인다. 2. 골담초 꽃은 씻어 소쿠리에 건진다. 3.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무쳐서 담고 골담초 꽃을 얹어 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mahamall.co.kr. 연꽃 메모꽃이. 폴크판에 수작업 그림. 폴크판 위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연꽃 메모꽃이'는 사무실이나 현관에 걸어두고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다.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직접 그림을 그려 정성이 돋보인다. 가로 18cm, 세로 5.5cm, 두께 2cm. 값 1만8천원. (02)732-1520

대강백 무비 스님이 10년만에 다시 펼치는 금강경 강의! 무비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과연 금강경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처임을 전면에서 걸쳐 끊임없이 자각시켜 주는 무비 스님의 감동적인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을 삶을 통찰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시대와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아 온 경전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정성들여 다듬고 다듬은 우리말 번역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금강경의 의미와 금강경이 던져주는 지혜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강의한 내용을 풀어쓴 것으로, 마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생동감과 일체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무비 스님/신국판/312쪽/9,000원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는!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나는 행운 만세력!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일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명리진경,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6 그림 당시주 대전, 7 사주학 핵심비결, 8 고전 풍수학 실습부, 9 사주학 강의, 10 관상 수상학 강의, 11 신토점비결, 12 사주 입상록,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16 꿈풀이 실용이 대백과, 17 명가총기의 기상학 비결,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20 윤회학 핵심비결,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22 직선수 형의, 23 대려 풍수 龍氣를 해부하다, 24 21C 천문만세력,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끔!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면,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기적은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비로 그 책. 신비의 건강요가 아유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써, 아유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심세계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